

교회 속 표

신령한 예배
천국으로 인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H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요만한 그날들 / 11월 29일 금요일

4.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1. '여호와와 종'과 '공의'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와 종'

'여호와와 종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로, '이사야'의 가르침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발견되는 반면에 '여호와와 종'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과 계사장 언약(창 19:4~6)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중언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제시했다고 믿는 견해이다. 이러한 논의는 '여호와와 종'에 대한 정의와 사역과 사명애 대해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이사야서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20회(사 40장~53장), 복수형으로 10회 사용되었는데(사 54장~66장), 단수형과 복수형을 함께 사용한 것은 한 그룹 전체의 대표자이며, 동시에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의 종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우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종'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사 41:8~10, 44:6~8, 44:21~23), 때때로 '종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사 54:17, 63:17, 66:14).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봉사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종'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했다(사 42:1, 4, 6, 49:3, 6, 50:4).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용어가 '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사야'는 '여호와와 종'의 노래에서, '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사 41:8). 그리고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사' 그리고 '야곱'을 '종'으로 표현했고(창 32:13, 19:27), '레위기'에서는 '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기도 했다(레 25:42, 55).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여호와와 종'의 노래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 나 역할 또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사 41:8~9, 49:3~44:21, 49:6~42:6, 51:4, 49:1~44:2, 24, 43:1, 43:1~43:16). 이와 같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종'의 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다(사 49:5~6).

그러므로 '여호와와 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아로 구원자이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야 마침내 '세로'로 다윗, '한 씨'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한 자' 등으로 알려진 '한 사람'인 것이다. 이 '종'은 나라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인데(사 42:6, 49:6),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가 '종'으로서 말발에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창세기 12: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족속'에 대한 약속의 응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위한 계사장 나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구원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호와와 종의 노래'의

주제인 것이다(사 42:6).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종의 약속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보내어졌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 42장 1절, 4절, 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교를 위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결정짓는 초점인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1절과 4절에 나타나는 '공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둘째, 6절에서 말씀하신 '백성'의 언약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6절에 기록된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누가 그 빛이 될 것이라 말인가?

'공의'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공의'의 뜻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공의'의 실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공의는 약속하신 종이 오셔서 정부를 세우고는 열방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열왕기하 17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떠한 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러나 열왕기하 17장 26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데, '여호와'가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사실을 동일하게 언급했다(레 5:4). '여호와와 종'의 역할은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제정하고 실행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와와 종의 노래'의 절정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한국말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선한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의는 심판에 있는 길이고 빛으로서, '심판' 즉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선교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다(사 41:4). '공의'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며, 모든 열방들이 이 길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선교적인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사야 41장 1절은 '여호와와 종'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와 종'의 능력과 원인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이사야'의 이러한 언급은 '여호와와 종'의 사역이 열방이며, 법적적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섬김을 일컫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 42장 1절~4절의 말씀에서의 '여호와와 종'은 이스라엘 중에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해되어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는 열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교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선교의 일을 담당하는 좋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따라야 할 바른 길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참된 종교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지 · 난 · 수 · 요 · 애 · 배 · 맥 · 사 · 지

뒤를 돌아보는 위험

'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창 19:26)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다.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기가 있고 필요할 일이지만, '뜻'의 아내를 세상에 대한 반대편에 뒤를 돌리라는 것은 열방에 미치는 자의 위험한 일이다. 황금 본토 천하의 집을 파냈던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그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이르렀다(창 13). 자기가 없었기에 마치 아들과 같았던 '롯'을 데리고 돌아온 '아브람'은 '여호와'에게 여호와께는 은혜를 베푸셨다(창 13:4). 그리고 '아브람'은 '헤브론' 마르세 상수로 수물로 이르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고(창 13:18). 세상이 흘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다. '롯'에 대하여 변함없는 '아브람'의 사랑은 그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친분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창 19:15).

- '뜻'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인간학자들은 '소돔'을 등지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올 때, 그녀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돔'을 버리고 뛰어들었다. 왜 주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돌아보라' -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창 19:17)고 한 것일까? 주께서는 그녀의 '소돔' 땅에서 떨어져나간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말인가? 마음 여호와께서는 '뜻'의 아내의 마음 중심을 변화시켰음이 분명하다. 자신의 인생을 투 자한 곳,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결실은 어디,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셨다. 미련 때문 한 번 뒤를 돌아보았으니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혹독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뜻'의 처를 생각하라(창 19:26).

-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세상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뜻'의 아내뿐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존중하기를 거절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처에게 보인 시기를 잊어버렸다(창 78:9~11).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확정짓고(steadfast, 즉 확정짓는 일이다(시 57:7).

- '데모'도 돌아보다

'비로'가 처음 두 배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창 4:1, 12)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딤후 4:1).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몰랐을까? 육신의 정욕과 인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일관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로마 1:25~16).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말인가(창 4:4)? 그런 바나나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으로 하여 더하며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는다면(고후 6:7),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게 될 것이다.

- 불행한는 제자들도 돌아보다

예수의 주변에는 늘 이기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다녔다. 자비(마 23:6).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과 자리에 위험을 느꼈던 선지자와 의인들에게도 탐욕하는 자들이며(마 7:25~53),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마 9:22).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나는 자들이(마 24:28), 믿음으로 살아야(마 10:38), '모든' 어떤 '대'를 자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마 1:2).

- 많은 자들이 돌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일은 예전에 있었고(고후 7:3),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한 일이다. 그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수습하고 버려지기 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시편 26:11).

God's prophetic plan is always on schedule. Sometimes it appears to witnesses as fast fulfillment, and other times it seems, with human eyes, to be too late. Whether or not we perceive it to come too quickly or too slowly, we can rest assured that it will forever be at the right time. For instance, the Israelites suffered under slavery for more than 400 years. During this time they cried and prayed with many bitter tears. It was only after the 400 years that God finally sent Moses as their deliverer. Today's Bible passage concerns the announcement of the birth of John the Baptist. Prior to this wonderful proclamation, God's people experienced 400 years of prophetic silence. The last prophetic message they heard came from Malachi. Hence, all the Israelites were patiently and eagerly awaiting God's Word. Finally, after 400 years the silence was broken and the good news came! Right now we are in a waiting situation concern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He tells us, "Yes, I am coming quickly" (Rv. 22:20). These words were spoken over 2,000 years ago.

When we look at today's Bible verses we find the entrance of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being prepared before His birth. Indeed, these verses foretell about John the Baptist as the forerunner before Jesus. The Bible tells us that a certain priest named Zacharias had a wife "from the daughters of Aaron, and her name was Elizabeth" (v. 5). Aaron was Moses' spokesperson for God. He was a priest and prophet. So, Zacharias and Elizabeth came from a very godly background. They were true believers, blessing people, children of God. But they had a heavy burden. They had no children. God's blessing to "be fruitful and multiply" had not come to them (Gn. 1:28). As God's people, especially considering Zacharias' priestly position, having no children was a sign of something being wrong.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ewish laws for divorce concerned a wife who could not have a baby. It was looked upon as a curse from God. The Bible tells us that Zacharias and Elizabeth "were both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walking blamelessly in all the commandments and requirements of the Lord" (v. 6). But the result of their righteous living produced no baby. They had no evidence of God's blessing. Everyone looked upon them thinking they had to have some sinfulness. Sure, they were great believers and great teachers but something was wrong because they had no baby. How about you? Do you

YOU WILL HAVE JOY

(Luke 1:5-17)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pray and practice your faith with a heavy burden? From this sermon, I want you to receive God's blessing of joy.

People have all different kinds of burdens. Maybe your heavy burden relates to health or money. Perhaps you have troubles at home or with others. Whatever the circumstance or situation, if you've prayed about it, God knows of it. Not only that, He has a plan regarding it. Zacharias and Elizabeth's burden was lifted on an ordinary day. Zacharias was performing his priestly duties when an angel appeared and told him,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give him the name John" (v. 13). The longing in each of them would be satisfied, the empty place filled. Notice that the day was not a special day; it was a day like every other day. Zacharias went to the Temple as usual. He prayed as usual, but this day a heavy burden was lifted.

Bartimaeus' burden of blindness was lifted when He met Jesus on a regular day leaving Jericho (see Mk. 10:46-52). He cried out to Jesus and his blindness disappeared. Zaccheus met Jesus while he was up in a tree. Jesus told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Lk. 19:9). The Samaritan woman encountered Jesus on

a normal day while she was doing her daily chores. It was just 'ordinary' days that these people met Jesus and received His blessing.

Whenever God's blessing comes, people get more than they expected. Zacharias and Elizabeth only wanted a healthy, normal child. They wanted a little baby to show other people that God had blessed them. They wanted to hear the cries of their baby, watch him grow, and share in his prospective life. That was their hope. Indeed, this was promised to them,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v. 14). What a blessing. But there's more. Their baby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will drink no wine or liquor,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sons of Israel back to the Lord their God" (vv. 15-17). People were going to hear their son's sermons and be changed! The Lord would be baptized by him and King Herod would be admonished by him. What an amazing blessing. But there's still more. Their baby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v. 17). Amen. Zacharias and Elizabeth's son would be an exceptional person. God gave them that much of an abundant blessing. Their son wouldn't be like any other human. No, his kingdom talk and walk would exceed all others. He would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because he would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v. 76). What a great blessing.

Before the first Christmas came, Zacharias and Elizabeth received this blessing. We are about to celebrate Christmas in a couple of weeks from today. I want each and every one of you with heavy burdens to receive much more than any blessing you could expect. How? Come to the Lord. Just come to Jesus. God will meet you there.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or what day it is. It doesn't have to be a special day and you don't have to be doing special duties. It may seem to you to be just an ordinary day, but God is waiting for just this right moment. He has a plan and a blessing for you and for your life. Humbly pray and come to Jesus. Then, you will have joy beyond measure. Like Zacharias and Elizabeth your cup will run over, and you will receive more than you ever asked for. You will have joy! Amen. 🙏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은 언제나 그분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어떤 때는 신속히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늦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것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백 년 이상을 노예생활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많은 괴로움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백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4백 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열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4백 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지금 주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제 22:20). 이것은 2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있는 고통

우리는 오늘의 성경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의 초림(初臨)을 예비하는 문(門)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오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성경은 ‘사카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에게 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5절). 아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모세의 대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카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경건한 배경을 가진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이고, 축복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사카랴’가 제사장의 선비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될 것 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유대인의 이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 중의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여자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카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의 날’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6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요 교사들이었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아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기도하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받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지요

(눅 1:5~17)

“...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이름을 기뻐하리니 ...”



김성관 목사

무거운 짐을 벗기심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건강이나 돈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나 기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일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카랴’와 ‘엘리사벳’의 무거운 짐은 일상적인 날에 들려 올랐습니다. 친자가 나타나서 ‘사카랴’에게 ‘네’의 간구들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13절)라고 말했다 때, 그는 제사장직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오랜 갈망에 만족함을 얻었고, 허전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때를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사카랴’는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갔고 평상시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날에 임한 은총

바디메오의 눈먼 고통은 일상의 날에 여러곳을 떠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벗겨졌습니다(막 10:46~52). 그는 예수께 의뢰고, 그를 험하게 하던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눅 19:9). 또한 ‘사마리아 여자’는 날마다 그녀에게 주어지는 따분한 일거리를 행하던 일상적인 날에 예수와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일상’의 날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옵니다. ‘사카랴’와 ‘엘리사벳’은 단지 건강하고 평범한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위하여 갓난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아기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아이의 장래의 삶을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바람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맺어졌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이름을 기뻐하리니”(14절). 진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욱 커다란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기가 다음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15절~17절). 후에 사람들은 ‘사카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 했고 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헤롯왕에게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17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카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은 뛰어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아니, 그의 아들은 주의 왕국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보다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보낸 바나사들이 때문입니다(76절). 진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

첫 성탄이 되기 전에, ‘사카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두 주일 후면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축하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은총보다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께로 나오십시오. 즉시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날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행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날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카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의 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인도

16교구 단기선교단(12월 2일~12월 10일)
뭄바이 북쪽(안드레이, 바르래쉬, 로나브리외리) 지역

1. 뭄바이 북쪽 빈민지역에서 담대히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2. 노방전도 때 교제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서 더 깊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3. 헌두 사상에 빠진 이 지역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도록.

현재 사역 중인 선교단

부서	사역지	날 짜
17교구	방글라데시	11월 27일(수)~12월 5일(목)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4교구 단기선교단과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8교구 단기선교단이 지난 주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 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 영 (권사, 7교구 불가리아 단기선교단원)



뮐리는 마음으로 첫날 불가리아 000 마을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한 청년에게 다가가 "즈드라베이테(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며 한국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청년의 종교가 불가리아 정교회임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아세요?"라고 물으며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청년은 전도지 받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2월 2일(화)

권능의 밤

무슬림들은 리마단 절기 중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이날을 특별한 날이며 신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는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자.

1.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이 구원에 관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 속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특별한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12월 3일(수)

스리랑카의 무슬림들

1900만의 스리랑카 인구 중 7~8%가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이 120만 명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1. 스리랑카의 크리스천들이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12월 4일(목)

이탈리아의 무슬림들

이탈리아들은 지중해 무슬림들 중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뛰어난 진리의 종교이기에 이탈리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믿는 열정적인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매우 적은 수의 전임 선교사들이 이 무슬림들 안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1. 현재 이탈리아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기도하자.

12월 5일(목)

인도 캘리크 지역의 마말라 무슬림들

마말라 인들은 지중해 상인이나 무역인으로 남아시아에 걸쳐진 여러 도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처럼 마말라 인들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1.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이 방문하는 세계 곳곳에 전하도록 기도하자.
2. 마말라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 청년에게 전도지를 함께 읽기를 권유했고, 마침내 형제는 저와 함께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부족했던 저는 형제가 직접 전도지를 읽도록 도왔고, 형제는 불가리아어로 된 전도지를 차근차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다 읽은 청년은 갑자기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50여 장의 전도지를 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저는 청년에게 가지고 있던 전도지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형제는 저에게 자기를 따라 오라 손짓하더니 앉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지 외에도 다른 대원의 전도지 50여 장도 들고 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땅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까지 이기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다른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니 경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신고했구나 봅니다. 경찰은 저에게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불가리아 현지 사정에 대해 들을 때 '경찰은 피하라'고 배웠던 저였지만, 전혀 떨리지 않아 오히려 미소로 경찰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경찰 역시 미소로 저를 대했고, 저는 오히려 그 경찰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단기선교에 우리 중원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내의 단기선교 사역

김창용, 이지영 가정

단기선교 사역을 다니는 후로 아내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의 기상시간은 6시 10분이었는데, 지금은 5시 10분이면 일어나야 한다. 새벽예배 때문이다. 최근 후에 식사를 마치면 TV전원을 꺼야 한다. 가정예배 때문이다. 모두가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이다.

아내는 3년 전 나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때는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가정의 신앙을 이끌고 있다. 아내가 선교사역을 다니는 후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창로님께서 아내에게 단기사역을 다니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아내는 땀방에도 단기선교 사역을 받아들이고 낯선 땅으로 떠났다.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참 많이 격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있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달았다.

아내가 선교사역을 다니는 뒤로 우리 가정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다. 새벽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공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출근하고 난 뒤 아내의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영적 잔소리(?)도 늘었다. 요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감격함도 늘었다. 요즘은 우리 가정에 많은 기대감이 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많은 사건과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앞으로의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고통의 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고 되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안이 나오곤 했다. 땅아와 같은 인생 길에 비록 나 혼자서 있을지라도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부부가 더불어 같은 길을 가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

김 경 희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실망하기 힘든 시련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낙심하기 지치곤 한다.

얼마 전에 사귀는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도 있었고, 오랜 시간 질병으로 시달리는 친구도 있었으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으며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 20년을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어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죠?" 하고 기도했다.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아시는 기도와 함께



한 말씀을 보았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1-3).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찬양하며 나를 신뢰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한다.

모세를 생각하며

마영훈, 최지은 가정



신혼 가정부에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모세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 그러나 모세에게도 나와 같은 인간의 열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뱃뱃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출 4:10). 나 역시 모세와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간수하고도 벼단내 전도라니요. 내년부터 잘 할게요", "봉사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일을 미뤘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며 지혜를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며 훈련되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듯 저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왜 이 모양 입니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외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바로 주님의 아들인 모세와 같은 모습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의 모습일까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주관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또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인 이 끝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

고통을 겪지 않는 인간은 없다. 전쟁과 혁명, 가난, 개인적으로는 사랑, 인간관계, 입, 심지어 덩치나 추운 날씨, 외로움 등으로 인해 고생한다는. 성경의 역사로 고통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고통을 모르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한 존재라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라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며 내뱉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 고통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으며 인간과 고통의 관계는 삭제해 버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알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보다 먹지 못할 나무로 시험을 먹었으니까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6-17). 이 때부터 인간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점점 더 다양하고 깊은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온다. 바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사리시기 하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피조물이다 이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가나나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롬 8:22,23).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버리셨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남아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 날 우리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죄로 인해 고통받은 인간들을 고통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절히 이용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와 저자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찮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했다. 앞으로 격주간으로 본 난에서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고통과, 성도가 가져야 할 고통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볼 것이다. (권영호 기자)

구역함양

그리스도인의 삶

6교구 오금구역/구역장 이필순 집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배우고, 한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세상에서의 축복, 즉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접하여 섬길 수 없으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라면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고난이며,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이다.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며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베를루다'는 말도 물질을 베푸는 것으로 함축시켜 놓는다. 그러나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베푸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물질만으로 베푸셨는가? 그분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과 모든 사람으로 베푸셨다. 그리스도인의 베풀은 나의 가진 것을 내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베풀 만한 것이 있었는가? 구원의 믿음, 시간, 물질, 사람 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본문 말씀에 대해 한 구역원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구역원은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는 기쁨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는데 사람들의 거부반응으로 생이 접하지 지금은 전하기 전에 사람들 눈치를 보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며 첫 신앙을 회개해야겠다고 했다.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기적일 수 없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아닌 나를 먼저 생각했겠는가? 우리에게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다.

(권요섭 기자)

다음 주일 찬송

267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이 찬송가는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Francis R. Havergal, 1836-1879)이 1872년 4월 28일 '한 일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작사하였다. 곡은 원래 로버트 A. 슈만의 작품을 편곡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크리스천)은 항상 어떤 언행에 있어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 주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임에 또한 틀림없으리라.

- 1절: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 2절: 주 날 인도 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주된 영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 3절: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내 새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꼭 잡힌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다
- 4절: 내 주 얼굴 밝히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찬한 몸 빈서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조용히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이 찬송을 불러야 한다. 주님의 명령을 조용히 기다리듯이.

(찬양위원회)

★양호실

1교구 오정원 장로(남64세) 뇌졸중으로 현재 마비된 신체 왼쪽을 재활치료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영 성도(여48세) 자궁경부암 수술 후, 암이 엉덩이뼈에 전이되어 곧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병도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9교구 황순화 권사(여68세) 폐암 말기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환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권민재 집사(여68세) 폐암 말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김동수 집사(남42세) 교통사고로 많이 다쳤습니다. 환우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종열 집사(남50세) 뇌의 염종으로 의식불명이었다가 회복되었지만, 몸이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이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환우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헌신

지난주 월요일(25일), 11교구에서는 고(故) 김순태 태교연구소장(전 5007, 1913년11월4일생)의 장례식을 교구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유가족이 없었던 고인(故人)은 소년경까지가 전, '천국일꾼양성'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다고 한다. 교회는 이미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에 위탁한 유산을 천국일꾼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모든 장례비용을 교회부담으로 해서 장례식을 치렀다. 바리새는 고인이 다하였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일꾼양성에 사용되어질 기대하며, 초현의 모든 장학생들은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산 재물로 드리는 진정한 천국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편 124편 - 하나님의 도우심

신앙 여정(旅程)의 길을 걷던 성도들이 돌았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시편 124편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부르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따르는 위험한 요소를 묘사하면서, 그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사 편이여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영세적인 세상일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 또는 직장생활의 고달픔에 지친 이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내 편, 내 도움이 아니라 불만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은 이러한 불평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증거 할뿐입니다. 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닌 이의 은혜와 이름에 있도다'라는 확신에 찬 찬양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현대인을 좀 다수는 별다른 사해와 치한 상황을 대면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냉소주의(冷笑主義)로 일관합니다. 냉소주의는 결국 믿음의 소망을 무력하게 만들고, 의심 많고 미숙한 애정결핍 한자가 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곤경지에 괴롭히는 의심들을 믿음과 대면시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회의적 사고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절망의 문제를 뛰어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구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찬양과 축복과 평강, 신의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시편 124편은 호강조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비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버틸만치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서 온전하게 보전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궁극적인 힘은 잠자면될 위험이나 흥수나 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24편은 우리의 환상이나 갈망은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윤희해진다고 선전하는 광고문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의 여정을 순례하는 제자들의 정직한 고백이며 기도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弟子道)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사탄(邪惡)에게 시 있습니다. 무엇인가 철저하게 분석·구분되는 과학적 통제제에 아래에서, 결코 본 적도,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 본 적도... 그리고 그 심층을 파헤쳐 본 적도 없는 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다. 별일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도 매일 사탄(邪惡)을 오고갑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활기를 고집합니다. "다들 그 위험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평생을 얻으려는 경쟁적인 분노와 야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만에 찬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낫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모든 것이 위태로운 실패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혜원 기자)

아이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함 회정 (유치부 교사)



“회정아-” 부모님께서 오늘이 주일 아침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오늘 만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는 “더 자고 싶은데”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재촉하시는 부모님의 음성에 반항을 하면서 말입니다.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학부 모들과 전화를 아이들 복장이 흰 상의에 검은색 하의라고 말씀드리며 한번 더 연습시켜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찬양대원이 되기 위한 관문이 399장이었는데 자신없는 목소리 때문에 인생의 첫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며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유치부실에 들어옵니다. 지선이는 제가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저 그 찬양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대답하며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유한이도 후렴 부른 “(군제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를 열심히 따라 부릅니다. 호롱호롱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큰입 벌려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현규, 진석, 자은이, 예신이와도 한 사람씩 마주보며 입을 맞춰 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 30분이 지났는데도 예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주도 함께 하던 참 좋을텐데... 자꾸만 예주가 눈에 뵈옵습니다. 결국 어섯 명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과 눈과 입을 맞추며 이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의젓한 모습으로 찬양을 잘 했습니다. “그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아줍니다. 이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떠오르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제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하고 아이들에게 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계시지”하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제게 정색을 하며 “아니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시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살게됩니다. 순수한 이 어린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제 삶의 가운데 계시어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치부실을 나옵니다.

주은이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

영아부 ‘강주은’ 아빠



“점짜가”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보니 주은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책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해서 장모님께 여쭙보니 낮에 잠깐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서 전화로 부산의 본가 부모님께 알렸다가 팔복을 아빠라고 놀림도 당했다. 주은이, 주님의 은혜란 뜻으로, 주은이를 키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싶어서 아빠의 작은 권한으로 마치 여저이같은 이름을 지었다. 어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겠지만 19개월된 아이가 한 마디 한 마디 새로운 말을 할 때면 어느덧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복을(?) 아빠가 된다.

주은이와 아내와 함께 영아부에 처음 오던 날, 다른 많은 영아부 친사들을 보며 우리 주은이도 저 아이들과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고 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에 대해 주은이를 통해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 아빠가 언젠가 식사기도도 빠뜨리는 소홀함을 보였을 때 주은이는 식탁 앞에서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아빠 차에 동승할 때는 무의식 중에 대중 음악을 틀고 있노라면 주은이는 영아부에서 첫날 받은 어린이 찬양 테이프를 틀어 달라고 항상 아우성이다. 몇해 전만 해도 나는 찬송이 좋아 찬송 테이프만 들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듣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식여져 가는 신앙생활 속에 주은이를 통해 많은 자성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지난번 영아부 선생님께서 심방 오셨을 때도 오시기 바로 몇분 전에 주은이가 졸려 낮잠을 자기 시작하자 나는 속으로 한편으론 오히려 번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좋아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주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울지도 않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나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나 중집적이었는지, 그리고 주은이가 이 아빠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어떡할까 하는 부끄러움도 앞섰다. 직장 쟁쟁, 세상 쟁쟁로 무뎌져 가는 믿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부부를 사랑하사 주은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한다.

믿음의 학교에서

에베에셀

블레셋에 빼앗겼던 연약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고, 기약어암 근처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삼상 7:1). 하나님의 연약케가 이스라엘로 옮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삼상 7:25). 블레셋의 억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였습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껏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요, 고난이, 외부의 억압이 그들의 신앙을 더 성장케 하여 준 것일까요. 고난이 은혜가 아닌가요?

연약케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무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땅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살아 계시는 참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3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4절).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회개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그들이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부흥이 시작되어, 백성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적부흥이 있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회고 고백’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패배시켰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싸움을 벌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7절).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8절).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연약케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라...”(10절).

이스라엘의 승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승리 역시 철저하게 연약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족속들은 철병기를 소유하였으며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에셀이라 하니라”(12절). 사무엘은 블레셋의 압제의 세월을 겪으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성한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각오 등이 섞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에셀’은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에베에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외민은 준 종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4-15)

(권왕일 기자)

모임

- 12월 정기대회
일시 : 4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 당회실
- 장로 필요세례기도회
일시 : 2일(월) 세례기도회 후
장소 : 배나홀
- 안수집사회 화요세례기도회
일시 : 3일(화) 세례기도회 후
장소 : 배나홀
- 안수집사회 결산 총회
일시 : 오늘 15:30
장소 : 교육관 201호
- 이. 미움 전도회 총회
일시 : 5일(목) 11:00
장소 : 로보리
- 권사 1 - 2지회 월례회
일시 : 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 강원리홀

남녀전도회

1. 비둘 5지회 총회
일시 : 3일(화) 18:30
장소 : 우리스아(☎508-8805)
2. 비둘 6지회 월례회
일시 : 7일(토) 17:00
장소 : 함울 하로구이
3. 요한 8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2:10
장소 : 교육관 311호
4. 한나 4지회 총회
일시 :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영아부실
5. 한나 6지회 총회
일시 :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교육관 401호
6. 한나 13지회 총회
일시 :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 강원리홀
7. 에스더 3지회 총회
일시 : 6일(금) 교구모임 후
장소 : 교구모임 장소
8. 에스더 6지회 총회
일시 : 3일(화) 11:00
장소 : 장실장 방 배대홀
9. 에스더 9지회 총회
일시 : 3일(화) 11:00
장소 : 박대회 집사(실로암 삼계탕)
10. 루디아 3지회 총회
일시 : 6일(금) 교구모임 후
장소 : 교구모임 장소
11. 마리아 3지회 총회
일시 : 6일(금) 11:00
장소 : 교구모임 장소

2022년도 제6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2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진호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서장진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노경록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여국근 목사)	교육관 304호		
12월 2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이수근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안창학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12월 29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분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배나홀)		

12. 마리아 13지회 총회
일시 : 8일(다음주일) 3부예배 후
장소 : 교구 강사실 소회의실

별 세

1. 김영준 성도
교과과 권사 남편, 김태웅 성도의 부친, 12교구 신사구역 / 11월 18일 별세, 11월 20일 장례
2. 최형실 타교권사
최선숙 은비권사의 모친, 10교구 상계1구역 / 11월 21일 별세, 11월 23일 장례
3. 강태유 씨
고상호 성도 모친, 김미애 권장의 시모, 7교구 암사2구역 / 11월 21일 별세, 11월 23일 장례
4. 박재희 성도
박우진 집사 장친, 박마리 집사의 부친, 10교구 상계3구역 / 11월 24일 별세, 11월 27일 장례
5. 김순재 타교권사
11교구 남산대운2구역 / 11월 24일 별세, 11월 25일 장례

결 혼

1. 김용식 군(김명열 씨, 신정숙 권사의 아들, 13교구)과 홍선영 양(홍홍식 씨, 이양순 씨의 딸) / 14일(토) 13:00, 장대례식을 통해 성혼함

주 소 변 경

1. 김삼복 집사, 임근애 권사
장로회 윤승진 수저를 공덕 천동 삼이(☎103-203)

이반주 세례기도회 담당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주일)
설교자	여국근	김영훈	이수근	이유진	나광영	방준영	위건량
지도자	임무현	김경환	강창식	강영철	장경수	김정연	조옥자

직원모집

총회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운전기사(1명 연차외차) -영 / 주빙부조(총회기도원, 경기도 광주, 가거자 한영) -3명
2. 자격 : 세례받은 자
3.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경유)
4. 서류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회교회 사무국 ☎ 552-8200

총회교회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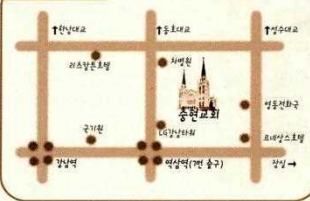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783	김혜진	1	대학부	김경숙(1)	791	김선옥	13	장년1부	고명진(13)
784	전순옥	1	장년2부	신동수(3)	792	설준애	9	한나	
785	이진란	1	장년1부		793	김명숙	17	장년1부	김은영(13)
786	김홍문	2	장년3부		794	윤혜영	19	대학부	장다용(19)
787	전초남	2	장년3부	김동순(15)	795	이은정	19	대학부	
788	김정애	8	장년1부	김진갑(8)	796	김정숙	19	대학부	
789	이숙연	9	장년2부	공정자(8)	797	신동규	19	청년2부	
790	박승민	11	장년2부	박승길(8)	798	송수남	1	장년3부	김점례(1)

*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총회증보의 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총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리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안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회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단계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타교동시통례예배)	본 당
	V 오후 3:00 (세례안기드라든예배)	본 당
찬 양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00~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예 배	오후 7:00	본 당
세 배 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분당 일출빌
금요집회	오후 10:30	버스: 금요집회 후 분당 일출빌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 토 오전 10:00 / 월, 목, 토 오후 7:00 (경동경비실로 출발)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소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건국 이병학
- 윤인환 최태민 엄필성 장모웅 오정현
- 이 훈 남순우 정운식 김영길 문홍구
- 조진재 김종구 최귀준 김진재 이창호
- 차신동 박영식 김광남 이종식 이하영
- 이병욱 안종욱 임무진 이종식 최기홍
- 이강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다용
-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정홍식 김갑기

■ 부목사

- 이승태 정현민 김동하 서장진 박인기
- 여성기 류병희 노경록 이종철 김영훈
- 여국근 김교섭 이국진 이윤희 안창덕
- 방준영 나광영 장진호 김용덕 이성숙
- 고광환 김광남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 장 훈 임현희 이희식 최홍철 하종철

■ 찬양감독 강인규

- 정연희 신동자 윤운국 한영준 김연식
-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 조옥자 강덕철 김정진 장재구 최본식
- 전은희 김영애 김정자 이수경

■ 단기선교사

- 장기영(선교사) 최은아(선교사)
- 합력선교사 허요셉(선교사)